

현대불교 98년 기획 돌부처를 찾습니다

담양 석불입상

불두위의 옥개석 독특

- 석불연구회 답사
- 연화사 상원스님 제보



상원스님

전남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길가를 지나치다 보면 미록굴 입구에 당당하게 서 있는 석불입상을 볼 수 있다.

키 3m, 폭 1m의 동굴벽 적하여 후덕한 상호인 이 석불입상은 불두위에 옥개석이 있고 뒤에 자연적으로 감실이 만들어져 있다. 또 앞에는 자연적으로 단을 해 냈다. 형식은 마애여래입상이다.

수인은 시무외인이고 가사는 통견양식으로 형식적인 웃주름이 표현돼 있다. 그렇지만 가사의 웃소매는 사실적으로 바다까지 내려와 있다. 이 입상에는 손금도 그려져 있을 만큼 선이 섬세하다.

키 3m 폭 1m 크기
육계·삼도표시 정확
코·원손·눈 등 손상

다. 세월의 흐름 탓인지 코와 오른쪽 허벅지 부분이 일부 부서졌고 원손과 눈이 시멘트로 영성하게 보수돼 있다.

기도객들이 있는지 입상 주위에 환교가 있고 작은 돌탑들이 백백하게 쌓여져 있다. 관리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입상은 항토적인 특색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육계와 삼도가 정확하게 표시돼 있는 것으로 보아 석가모니불로 추정된다.

이근후회장(한국석불문화연구회)은 "시무외인수인이나 가사가 통견양식인 것으로 볼 때 삼국시대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으로 형식화된 조각수법을 띠고 있어 고려시대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역주민들은 마애석불입상이 원래 미록굴 한 가운데 있는 바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발 끝자락



담양 미록굴 석불입상

으로 옮겨졌다 한다. 기록이나 문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산 형세로 보아 아주 먼 옛날 이곳에 사찰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 박종삼씨(64세)는 "옛날부터 이곳을 부처굴이라고 불렀다"며 "석불이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어 관리가 소홀했는데 기도하러온 사람들이 시멘트로 조잡하게 복원하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석불을 재보한 상원스님(담양 연화사주지)은 "사찰로 옮길 것을 고려해 보았으나 문화재는 재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담양군청에 석불입상 관리책임 사찰로 등록하는 등 직접적인 보존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리=김원우 기자



고려 후기 만든 석가여래

해룡사 미록불

고증: 정영호 박사



해룡사 미록불(본지 171호 24면 보도·사진)은 불상의 기본인 육계와 삼도가 없고 우견편단만 갖추고 있어 비전문가가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식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유행한 상한좌 양식을 수용했지만 시대가 많이 떨어진다. 특히 불두가 떨어졌던 흔적이 있고 입과 눈도 후대에 새로 손질하여 특이한 형상으로 변질됐다.

조각양식이나 자를 쓴 흔적으로 보아 조성시기는 고려 후기이고, 손에 아무것도 들지않아 석가여래로 봐야 한다.

인위적인 손질로 약간 변형됐지만 해당군에서 지역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고원대 박물관장)

돌부처 찾기 제보 받습니다 (02)722-4162



담장이 그린 일본 법흥사 금당벽화 비천도

日 법흥사 금당벽화 50년만에 공개

49년 화마(火魔)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일본 법흥사 금당벽화 비천도 일부가 50년만에 처음 공개됐다.

일본 나라국립박물관은 신관 원공 기념으로 일본 고대문화의 환금기인 8세기 유물만을 집대성한 '천경(天淸) 전'을 개최, 고구려 스님 담장이 그렸다고 전하는 법흥사 금당벽화와 고구려 비단, 금광명회승왕경(金光明

最勝王經) 등 한반도 관련 회귀유물들을 일괄 공개했다.

작·홍·황 삼색이 찬란하며 부드러운 선이 일품인 비천상벽화는 가로 136cm 세로 71cm에 두께는 15cm. 1949년 화재로 석기 아미타 미륵 약사불로 구성된 벽화의 대부분이 다 타버렸지만 비천도 일부만은 남아 덩어리째 태어 사할 수장고에 보관돼 있었다.

신행수기 당선작

나한도랑에서 맺은 인연②

(천태종 총무원장상)

결

은 어디까지나 절하는 곳기에 내 마음을 바르게 닦지 못한다면 마음의 밭은 벼는 마음이라 생각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만드는데 전념하겠다고 발원했다. 이는 나 하나의 힘보다도 배우자를 만나 함께 일하고 싶었다. 출가하지 않고 재가로 살면서 한집에 사는 배우자와 같은 길을 함께 간다면 더없는 도반이고 복된 길이지 싶었던 것이다. 물론 결혼을 기다리시는 부모님께도 자연스레 효도하는 길도 될 것이고, 진정 범상치 않은 도반을 아내로 맞고 싶었다. 그래서 함께 불자의 길을 탐미하고 싶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 결혼관이 별나다고 생각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 길이 오만한 불자의 길을 가는데 가장 좋고 빠른 길이라는 생각을 굳혔다. 그래서 스승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을 냈다. 그때 불현듯 떠오른 분이 고교시절 인연이 깊었던 해해스님이다. 나는 아는 선배에게 수소문하여 스님이 계신 곳을 알아냈다. 97년 5월 무작정 스님이 계시다는 경북 영천시 함흥면 신원리 거조암을 찾았다. 10년 세월이 흘러 나를 기억하지 못할 줄로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스님은 첫눈에 "어, 이게 누구신가!" 하시며 반갑게 맞아 주셨다. 스님을 뵈고 싶어 일부러 찾아왔다고 말씀드렸더니 스님은 오히려 당신 말씀을 하신다. 3년전 병이 들어 이곳 거조암에 오셨다는 것과 거조암이 오백나한님을 모신 나한도랑인데 나한님 5백26분이 너무 좋지 않은 환경에 계시는 것이 늘 가슴 아프시다는 것이다. 당신의 병인 두통보다 더 마음이 아프셨다며 이번 기회에 발심하여 보수공사를 진행중이라 하였다.

나는 스님께 간단히 말씀드렸다. "불도에 이르는 도반으로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 기도도 많이 했지만, 정작 나의 인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어찌하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스님은 "아직 때가 아니겠지"하시고는, 오백나한님께 기도해 보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기도 체험 사례 몇가지를 들려주셨다. 나에게도 오백나한님의 가피가 내려질까, 이왕 마음먹고 기도를 시작하였으니 내 마음을 한번 깨끗이 닦아 보자고 결심했다.

6월부터 매주 기도를 하기로 결정했다. 토요일이면 직장인 울산에서 영천 거조암으로 내려와 기도하고 일요일 오후에 울산으로 올라가는 생활을 시작했다. 평일에는 직장생활에 충실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거조암에서 오백성중님께 철야기도를 하였다. 우선 내 마음을 열었다. 그리고 오백나한님께 진심으로 이생에는 나한님께 원하니 업장소멸해주시고 내생에 다시 사담으로 태어나면 중생구도자가 되겠노라. 그래서 스승을 만나 영복한 가장 이루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불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이제 불효하지 말아라지 악인원리 귀인상봉..."



그림·이준석

"악인원리 귀인상봉(惡人遠難 貴人相逢) 악인원리 귀인상봉..."

인연을 맺지 못하고 혼자 있는 자식을 보고 부모님께서 은근히 걱정이 많으셨다. 가족이나 병약하신 아버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모습은 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런데 7월 여름 무더위에 한참 철야 정근기도 중인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3천배를 넘기는 순간 나한존자께서 가시장삼과 금장가사를 내 몸에 돌려주시고 사라져 버렸다. 더욱 열심히 정근을 마쳤다. 이어진 새벽예불을 하면서도 조금씩 기도하면서 일어나 일들에 생각이 모아졌다. 그러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한님께서 왜 나에게 가시장삼과 금장가사를 돌려 주셨을까 내내 의문이었다. 새벽예불을 마치고 스님께 말씀을 드렸다. 스님께서는 "나한님이 머리 꺾으라고 하시는 것 같다" 하시며 출가할 것을 권하신다.

김재화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 역사속으로 떠나는 죽음기행 -

남산이 북산을 보며 웃네

- 맹란자 지음 -



신국판/304쪽/정가 7,000원

그대 최후가 그대의 전부이다!
여기 그 죽음을 빛나는 인간들의 최후를 통해서 극적으로 보여주는 전람회가 있다. 맹란자 여사의 불교, 老莊, 그리고 周易의 여가에 그 일을 해내어 사람들을 한밤중에 깨어나게 하고 있다.

- 고은 추천사에서 -

- 유명인들의 죽음순간 생생히 묘사-〈한국일보〉 4.15.
- 세계적인 철학자, 예술가 죽음에도 담은 꿀 있었다-〈뉴스피플〉 4.23.
- 죽음앞에서 더 눈부신 삶 표현-〈경향신문〉4.17.
- 죽음 또한 자연 아닌가/ 장자, 육상산과 황수인, 소강절과 서화담
- 이 책은 읽는 재미와 함께 자기 삶을 들여다보고 내다보게 한다. 따라서 남녀노소 두루 볼 수 있는 가족 필독서-〈현대불교신문〉4.8.
- 동서양 역사인물들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들을 다룬 인문교양서다.-〈서울신문〉5.5.

도서출판 세훈 -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28-6 남현빌딩
전화: 3462-2277 팩스: 3462-2279

지금은 IMF시대,

어려운 시기에 우리웃을 입읍시다.

우리웃 — 연/지/곤/지

연지곤지는 생활한복 대중화의 최일선에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단체복주문시 (30인이상) 최고급 생활한복을 ₩50,000(상하 1벌)에 공급해 드립니다.

● 생활한복 사업하실분 상담환영합니다. ●

▶ 문의처 02)3461-8552~3

안국동 로타리에 연지곤지 전시장이 있습니다.